

“호남 9년간 차별·실움 씻고 정권창출 자부심 담아내겠다”

광주시·전남도-민주당 '예산·정책협' 무슨 말 오갔나 예산에서 5·18까지 지역 현안 문제 폭넓은 의견 교환 37개 사업 국비 지원 요청 ... 한전공대 등 상생과제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2017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등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현안 7건과 국회 상임위의 예결위에서 추가 또는 증액이 필요한 21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확장 등 16개 사업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시, 공공형 이전 등 건의=광주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광주 공공형 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 ▲대형공원 국가공원 지정 및 국비지원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장애인인권센터 건립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국제기관 설립 등 지역의 현안사업 7건을 건의했다.

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538억원) ▲가상현실(VR)제작 거점센터 구축(50억원) ▲자동차 전자부품 고안전 지원체계 구축(3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288억원)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100억원) ▲광주 솔로몬로파크 건립(8억원) 등 2018년 국고 지원사업 21건(1481억원)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한전공대 설립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등 광주·전남 상생과제 3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운영형 시장은 “지역 현안 대부분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향후 5년간 지역 일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5·18 당시 헬기 기동사격 등을 특별 조사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광주형 일자리 지원 등을 약속한 만큼 현 정부가 성공하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등 요청=전남도는 이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확장 등 16개 사업 1조1천619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6건의 정책 지원 및 3건의 광주·전남 상생과제를 건의했다.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지역 현안 SOC 사업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광주~완도간(1단계)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흑산공항 건설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별교~주암 간 3공구 국도 4차로 확장 건설 등에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 및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인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과학로봇 최적화 개발 지원사업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순천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설립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 구축 등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IV지구)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설 ▲국립육진진흥공단(KSPO) 스포츠 안전교육센터 건립 ▲2018 국제와이즈넷 여수세계대회 개최 지원 등도 요청했다.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광주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지원 ▲광양항 항만기반 시설 확충 ▲‘이순신대교’ 국도승격 및 지정국도 지정 ▲섬의 가치와 개발촉진 지원사업 확대 등 6건에 대해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시·도 상생과제도 논의=이날 광주·전남도는 더불어민주당의 ‘2017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도 상생과제로 ▲한전공대(Kepco-Tech) 설립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등도 건의했다.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광주시·전남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두 차례 이뤄지면서 호남 출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고 해, 진심을 보여주자 지지도가 총 출동했다”며 “민주당은 호남을 뿌리코 여기며 지역 예산을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예결위위원장과 정책위의장만 참석했지만, 광주·전남에 출출동한 것은 호남 예산만큼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마음 때문”이라며 “당에서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남해안철도, 광주도시철도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 계획을 준비한 상태이고, SOC에 국한하지 않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등 호남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재현 의원은 “광주·전남이 문재인 정권 창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만큼 지역민들도 집권당을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기대감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지난 9년간 겪은 차별과 실움을 참작해 예산을 심의조정하고 확정지어 지역민의 기대를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전남도와 예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 등을 점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북핵문제 해결 초당적 협조해달라”

문대통령·여야대표 회동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북핵 위협 등 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국정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이날 회

동에서 우선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등 안보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군의 대비 태세와 미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조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72차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온 미국 뉴욕 방문 결과를 여·야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체 구성’과 여·야 간 협의 방안,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 다양한 국정현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회 장대회 개최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저와 정부는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세계의 많은 지도자도 대한민국의 절박한 호소에 화답하고 있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로, 어려운 길이지만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기엔 어떤 난관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함께 맞는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평창에서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194개국 740만 재외동포와 한인회장단 여러분이 세계 곳곳에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홍보해주신다면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함께 맞는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평창에서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194개국 740만 재외동포와 한인회장단 여러분이 세계 곳곳에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홍보해주신다면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198) 해바라기

지인으로부터 그림 한 점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가게를 개업하는 친구에게 재물 운을 불러준다는 해바라기 그림을 선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술 작품은 안목이 아니라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잠시 머뭇거리었다. 해바라기 그림에 그런 기복적 기능이 있는 줄을 나만 몰랐던 것 아닐까. 좋은 작품은 미술사가가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바라기 작품에 녹아있는 고희의 삶

모두가 때론 고상한 욕망으로, 때론 사소한 끌림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간다. 해바라기 그림 하면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희(1814~1875)를 반사적으로 떠올린다. 살아생전에 그토록 불우하고 혹평받고 가난했던 화가가 사후에도 그림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던 것은 재물을 불러오는 해바라기 덕분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고흐가 그렸던 해바라기 그림이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그동안 술한 화가들이 그려왔던 장식을 위한 아름다운 꽃 그림의 전통을 깨뜨렸기 때문일 것이다. 해바라기 작품 한 점에도 화가의 삶이

녹아있을 뿐 아니라 화가가 헤쳐 나갔던 풍상이 그대로 깃들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타는 듯한 황금빛에 이끌리게 하는 지도 모른다.

꺾어서 바닥에 놓인 작품 '해바라기' (1887년 작)는 강인하고 경이로운 보인다. 촘촘하게 박힌 크고 검은 씨에는 생명력이 응집되어 있어 한 송이 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생명체 같다. 거칠게 표현한 해바라기 꽃잎과 배경에서 화가가 바로 몇 초 전에 붓질을 마친 것 같은 생생함이 느껴진다. 그림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을 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



빈센트 반 고희 작 '해바라기'

쳐주는 그림이 고희의 작품들이었다. 그림추천을 부탁한 지인에게는 10월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아트페어에 가보길 권하려고 한다. 그림이 나에게 말 걸어오며 다가오는 작품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광주비엔날레 광주주최부장·미술사 박사>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의료광고심의의달 제 17073-중-83321호

자켓을 입고 벗기가 불편한가요?

“팔이 뒤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 중점 치료
비수술적 주사 치료 및 관절내시경 시술은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 앞위치!